

“전국 첫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익산시, 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5:1 경쟁률 뚫어 사업 ‘본격화’ 105억 투입해 2026년까지 구축 산학관 협력해 기술 적용 확대 국산 농산물 활용 연구도 진행



2022년 발표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이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지역 푸드테크 기업 유치 기

익산시가 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신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 중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꼽히는 푸드테크(Foodtech) 산업육성을 위해 지난

반 조성과 푸드테크 신기술 적용 확대 등 푸드테크산업의 거점 역할을 하게된다. 익산시는 5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선정 쾌거를 이뤘다. 이는 공모 준비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이다.

지난해 6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개발부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공공 R&D 지원센터’를 농식

품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익산시 푸드테크 기반 식품 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 푸드테크 기반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농식품부 사업에 공모한 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협력해 선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결실을 얻었다.

또 기업 수요조사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협업체 구성 방안, 지역 농가 활성화 및 기업 간 상생 방안 등을 마련해 공모에 대응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익산시는 국비 포함 10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6년까지 전국 최초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구개발부지에 조성한 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

흥원이 운영할 예정이며, 푸드테크 기업을 위한 산·관·학 협력을 통해 중소식품·외식업체에 푸드테크 기술을 적용하고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센터는 단백질 추출 장비, 압출성형 장비 등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국산 농산물을 최대도 활용한 소재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을(사진) 시장은 “전북자치도, 농생명 기관, 대학 등이 힘을 합쳐 푸드테크 산업 선도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며 “최고의 기업지원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와 연계해 대체식품 거점 시설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

그린바이오 거점지 도약기대

정읍 공모 선정사업추진 ‘탄력’ 99억 들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2월 미생물분야 전국 유일의 그린바이오 거점으로 지정된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수행하게 된다.

정읍시가 ‘그린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전망이다.

지난 25일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는 것.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 ‘농식품분야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일환으로 2025년까지 총 99억을 투자해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과 생산공정을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하는 첨단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 선정을 위해 초기 사업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그린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토대로 첨단분석시스템을 바로 구축·운영할 수 있는 장비·시설·인력이 확보된 최적 적합지임을 강조한 결과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은 작년

특히 센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GMP기반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과 농축산용미생물 공유인프라사업이 완료되면 소재 개발부터 상품·제품화, 대량생산까지 전방위적인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보하게 돼 명실상부한 미생물분야 종합지원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사진) 시장은 “공모 선정을 기점으로 그간의 성과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업지원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정성우기자

〈장애인거주시설〉 익산 햇살정원 새롭게 ‘활짝’

익산시 장애인거주시설인 ‘홍주원’이 새로운 동지를 만들고 시설 명칭을 ‘햇살정원’(원장 박미진)으로 변경하면서 25일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이춘석 국회의원 당선자,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이전 개소를 축하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된 햇살정원은 2022년 신용동 소재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2월 이전을 완료했다.

총 면적 902.9㎡에 4층 규모에 1층은 식당, 2층은 여자 생활실, 3층은 남자 생활실, 4층은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됐다. /익산=김종순기자



고창군의회가 새만금 유역 어장 생태복원을 위한 갯벌 환경피해조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해수유통 확대해 어장생태 복원하라”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 24일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어장 생태복원 및 새만금 개발에 따른 고창갯벌 환경피해조사 건의(안)’를 채택했다.

제305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은 고창 심원하전마을은 유네스코에서 보전가치를 인정받은 청정갯벌을 보유한 곳으로 연간 최대 2만톤, 평균 1만2000톤 내외의 바지락 연중 생산하는 전국 최대 산지다. 하지만 각종 국책사업 건설로 조류 변화가 일어나 지속적인 갯벌의 침식과 퇴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까지 겹쳐 바지락 양식어장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의안 채

택배를 설명했다. 더욱이 새만금 담수화 추진에 따른 제한적인 해수유통이 수질 오염을 야기해, 2017년부터 새만금에서 자란 우수한 바지락 종패가 심원하전마을 어장에 공급이 중단되어 현재는 중국산 종패를 수입해 공급하고 있으며, 그 의존도가 90%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생태복원을 국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새만금 개발

의 대전환을 시행할 것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 해수유통과 새만금 개발에 따른 고창갯벌 환경피해조사 계획을 필히 반영할 것 ▲전북특별자치도는 환경부와 함께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 중장기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상시 해수유통할 것을 역설했다.

한편, 고창군의회는 전문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갯벌연구센터와 어민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겨울철에는 예년과 달리 필이 쌓이지 않아 작년 가을에 뿌린 3590톤의 중국산 종패 중 2346톤인 65.4%가 유실되어 44억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고창=신동일기자

정읍 장애인 취업박람회 성료

‘2024 정읍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지난 25일 고평리스포츠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 고용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정읍시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중개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각종 일자리 관련기관이 협력해 마련됐다.

이날 박람회에는 정읍에 등록된 장애인 500여명과 하림·대우전자부품·투셀플레이스 등 10개의 구인업체가 참가해 기업 홍보와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정읍=정성우기자

정읍,친환경 산후조리원 설립 ‘순탄’

58억 투입해 2026년 준공 목표 새달부터 설계 용역 착수 돌입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

지난 25일 시는 설계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계약 완료 이후 업무 회의를 통해 전체적인 설계 진행 계획을 협의하고 5월부터 설계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공사비 58억을 투입해 용계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10실의 산모실(총면적 1400㎡) 규모로 2026년 초 준공을 목표로 지어질 예정이다.

산모실과 영유아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돼 서남권 산모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읍=정성우기자

선정업체는 “산모와 신생아가 누릴 수 있는 친환경 공간과 출산에 대응이 가능한 공공 커뮤니티 복지시설로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해 일체감과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며 “산모와 가족들이 최고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산모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 뜻 모아 우정 차곡 차곡

민주평통 익산·경주협의회 친목 다지며 사업 협력 ‘약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가 경주시협의회와 23일과 24일 1박 2일동안 상호 교류협의회를 개최하고 친목을 다졌다. (사진)

익산시협의회(회장 김갑수) 일행 20여명은 이날 경주를 방문해 경주시협의회(회장 이상호) 위원들과 상호 상견례를 실시하고 무열왕릉과 통일전 등 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했다.

아울러 익산시협의회 김갑수회장을 비롯 공진권 수석부회장, 임화영 소통위원장, 강성자 여성분과위원장, 경주시 이상호 협의회장, 경주시 김성학 부시장, 경주시의회 이동협 부의장, 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협의회 소개와 환영 인사를 실시했다. 양 협의회는 또 행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와 협

력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민주평통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에 앞장서고 추진사업 달성에 필요한 정보교류도 적극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경주시협의회 이상호 회장은 “익산시협의회와 경주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더욱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협의회 김갑수 회장은 “자문위원 간의 교류를 넘어 경주시와 익산시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익산=김종순기자

고창,437억 들여 살기좋은 농촌 조성

군-농축식품부 업무협약 체결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협력



반영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반영된 농촌공간 전략계획(2024년~2043년) 및 활성화계획(2024년~2028년)을 수립한 바 있다.

고창군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437억원 규모의 2024년 농촌협약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등 시·군이 직접 수립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 협약을 통해 각 개별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다.

앞서 고창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농촌다움 보전지역 고창’을 비전으로 지난 2023년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전문가의 조정·보완 검토를 거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반 협약에 따라 고창군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 동안 국·도비 313억을 포함해 총사업비 437억원으로 읍·면의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나선다.

심덕섭(사진) 고창군수는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고창군이 가진 생활서비스 기능을 군 전 지역에 공급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



고창 공음면 무장기포지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행사가 진행됐다.

동학농민혁명 승고한 정신 기리며 행진

고창 무장기포지서 130주년 행사 축하공연·기념사낭독등 진행

(회장 고재국)이 수상했다. 장흥기념사업회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동학농민혁명 제130주년 고창무장기포지기념제가 25일 공음면 무장기포지(국가사적 563호) 일원에서 열렸다.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정기백 이사장)가 동학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심덕섭 군수, 임정호 군의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각 기관사회단체장과 전국 유족회 및 기념사업회, 영선고 재학생, 군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해 농민혁명의 승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에 앞서 ‘제17회 녹두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앞장서 오고, 지난 1월 ‘전국 동학농민혁명연대’ 창립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어 왕기석 명창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제17회 녹두대상 시상,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 무장읍성 입성연 행사와 주영채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무장포고문(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낭독과 영선고등학교 학생들의 동학농민혁명군 4대명의 및 12조 계군호령 낭독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포고문은 동학농민혁명의 대의명분을 함축해 전라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격문을 보내 농민군들의 합류를 촉발했다. 여기에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인 대규모 항쟁으로 커지고, 우리나라 역사의 민족·민중항쟁의 근간이 되는 선언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창=신동일기자